[카드뉴스] 키워드로 본 금융IT Issue 5월 #1

이슈N뉴스

금융IT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들을 살펴봅니다.



세계 역사는 이제 BC(Before Covid19; 코로나 이전)과 AC(After Covid19; 코로나 이후)로 나뉘어 흘러가리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전염병에 의한 위기 상황은 지속되고 있지만 세계는 발 빠르게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권 판도가 바뀐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 경제성장을 위해 **'디지털 경제 선도' 강조.**
금융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금융권의 판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

"금융 겸업화로 수익 다변화 이뤄야"

지난 4월 개최된 '금융전략포럼'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금융 역할의 중요성 언급.**
금융사가 겸업화 추진하면서 비이자 이익 창출하도록
겸업화 관련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 강조.

▼ ▼ ▼

"금융의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시점에서 금융지주사의 큰 틀 안에서
금융 겸업화를 확대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해 불확실성을 타파할 것"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권 판도가 바뀐다!

비대면 시대 도래, 핀테크 챙기기

신한은행

금융권 최초 고객상담센터 재택근무 시행하는 등 발 빠른 대처로 주목.
오는 8월 '블록체인 기반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리 플랫폼' 출시 등 디지털 중심 혁신 준비

KB 국민은행

지난 4월 빅데이터로 디지털 심사 플랫폼인 '기업여신 자동심사 지원시스템' 도입,
올해 하반기에는 미래형 전산시스템으로 마케팅 프로세스와 시스템 고도화 계획

하나금융그룹

지난해 투자한 보험 핀테크 '보맵' 통해 디지털 보험 시장 선점 이후 토스뱅크 컨소시엄 참여 및
신남방 ICT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업 추진

전문가가 본 포스트 코로나



"신종 코로나 사태로 전 분야에서 디지털 경제의 수용이 높아져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앞당길 것"
_정진택 고려대 총장 (한국일보 인터뷰 중)



"코로나19는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것,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금융 혁신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시점"
_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 규제 샌드박스 도입 1주년 회의 중)

인터넷은행법 20대 국회 통과 관련 시장 지형 변할까?

20대 국회는 지난 4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최종 의결.**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

이에 **대주주의 지원을 받지 못한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자본 확보 및 경영정상화 가능

케이뱅크 주요 주주 비율

- 우리은행 13.79%
- KT 10%
- NH투자증권 10%
- 케이로스유한회사 9.99%
- 한화생명보험 7.32%
- GS리테일 7.2%
- KG이니시스 5.92%
- 다날 5.92%
- 기타 29.86%

▼ ▼ ▼

금융 규제에 대한 부담으로 인터넷은행 진입을 꺼렸던 네이버, 넷마블, 넷슨 등
국내 주요 ICT 기업들의 시장 진입 유도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

인터넷은행법 20대 국회 통과 관련 시장 지형 변할까?

거침없는 카카오뱅크의 독주

kakaobank

카카오뱅크는 올 1분기 당기순이익 184억 7300만원으로
전년동기 65억 6600만원 대비 181.3% 증가하는 등 실적 고공행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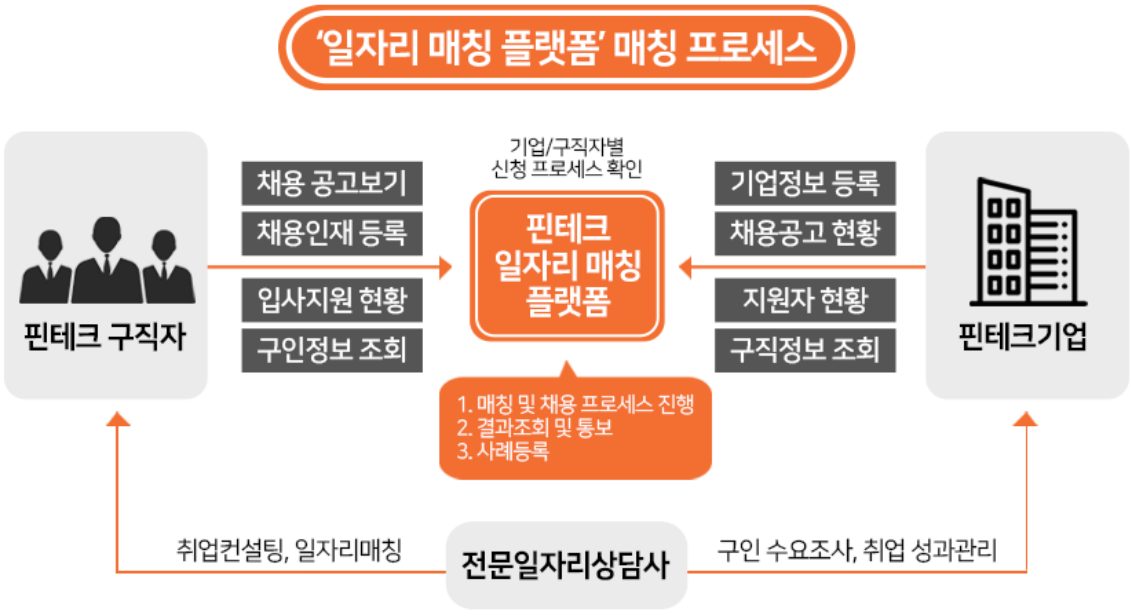
지난 4월 27일 기존 카드사와 제휴 방식으로 신용카드 출시,
수수료 부문 개선세가 2분기에도 이어질 전망.

올 하반기에는 기업공개(IPO)를 위한 준비 작업 착수.

2021년까지 비대면 금융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 연구소 오픈 목표.

핀테크 부문 특화 '일자리 매칭 플랫폼' 7월 오픈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7월 문을 여는 핀테크 분야
온라인 '일자리 매칭 플랫폼'은 오프라인 사업인 '일자리매칭존'과 연계해 운영.
일자리매칭존은 오는 6월 개소할 마포 청년혁신타운인 '프론트원' 안에 마련될 예정.





* 저작권법에 의하여 해당 콘텐츠는 코스콤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합니다.